

# 대중결으로. 한. 발. 내딛은. 예술제본.

• 가치 있는 책을 아름답게, 오랫동안 보존코자 시작된 예술제본. • <출판지널>은 텍스트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책의 미적 가치와 보존에 대한 관심 확대를 반영하고 이를 권하는 의미에서 예술제본가 백순덕, 씨로부터 다양한 예술제본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려 한다. •

백순덕 | 렉토베르소(www.rectoverso.co.kr) 대표

## 교차된 구조 I

La Reliure  
à Structure Croisée

그동안의 무겁고 전통적인 예술제본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제본을 소개한다. 《교차된 구조》. 이 제본은 왼손가락들을 벌려 세우고 오른쪽 손가락들을 교차시킨 것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는다. 이탈리아의 예술제본가인 카르만쵸 아레기(Carmencho Arréqui)에 의해 고안된 작품이다.

“20여 년 전부터 여러 나라의 몇몇 제본가와 고서 복원가들은 새로운 제본 기법들을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는 책이 잘 펼쳐지고, 효율적인 책표지 제작 방법을 고안해 내기에 이르지만 미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 이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을 계속한 그들은 국제적인 연관을 맺고 그들의 생각을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본가인 카르만쵸 아레기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었던 예술제본을 일반 대중들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끌어내렸으며 외국의 제본가들과의 활발한 만남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교차된 구조》는 제본의 보존을 염두에 둔 나의 고유한 첫 시도였다. 나의 제본가 친구들의 작업을 눈여겨보며 《교차된 구조》가 제본에 있어 서로 다른 미학

을 위한 촉매작용을 할 것과 현대제본에 있어 새로운 제본의 위치를 만들게 될 것임을 믿게 되었다.”

이 새로운 제본이 예술제본계에 끼친 영향은 파격적인 것이었고, 제본은 ‘고전’의 이름 대신 ‘현대’의 옷을 입게 되었다.

《교차된 구조》는 정확한 도안 작업과 바느질의 견고함(책 등의 바느질은 노출된다), 풀을 사용하지 않고 고도 표지의 연결이 가능한 점, 표지의 부드러움, 비교적 짧은 제작기간, 자유롭게 열리는(펼쳐지는) 텍스트 등등의 특징을 갖는다.

그녀는 이탈리아 양피지와 종이로 된 고서제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책에 많은 부담을 주는 고전제본 대신 《교차된 구조》라는 새로운 형태의 제본을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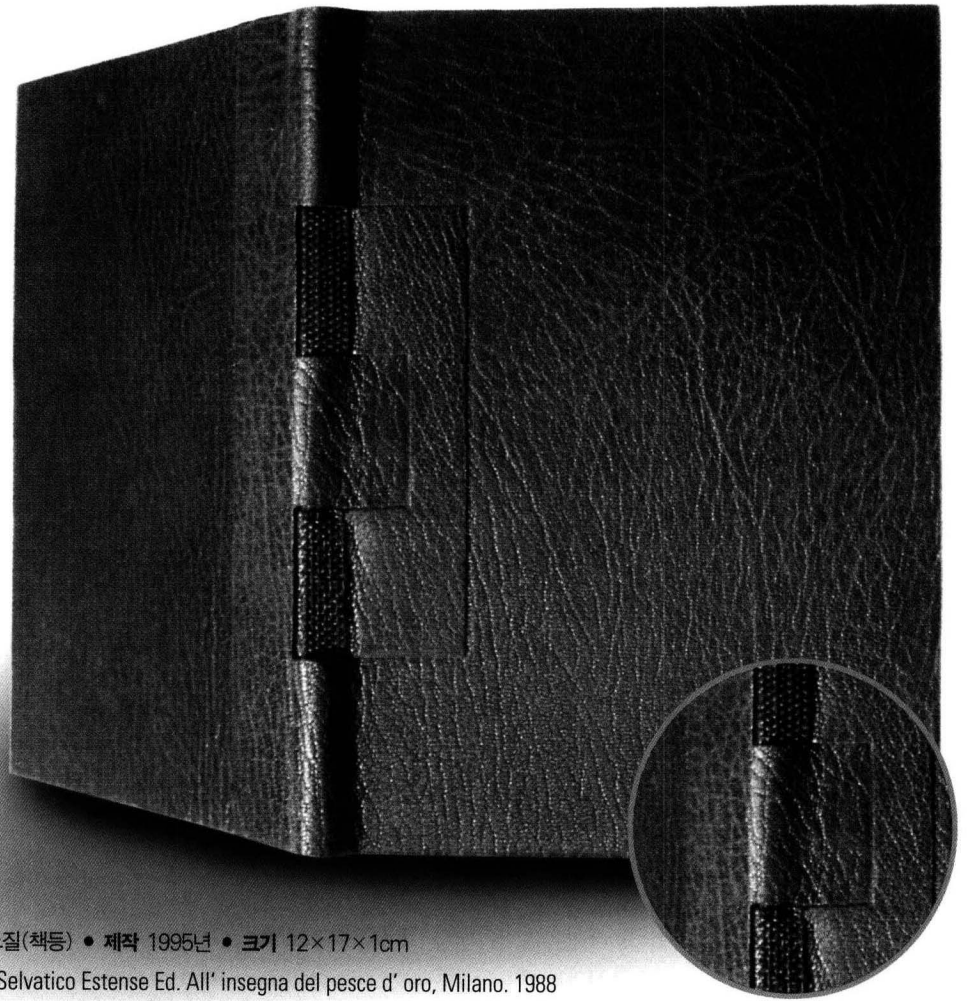
위의 제본은 카르만쵸의 최초의 작품이며 1992년은 이 제본 탄생의 원년이 되었다. 안전하고 조심스레 만들어진 이 소박한 작품을 시작으로 각국의 예술제본가들은 수천 수만의 서로 다른 형태의 ‘교차된 구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출판**

‘교차된 구조 II’는 다음호에 계속

카르만쵸 아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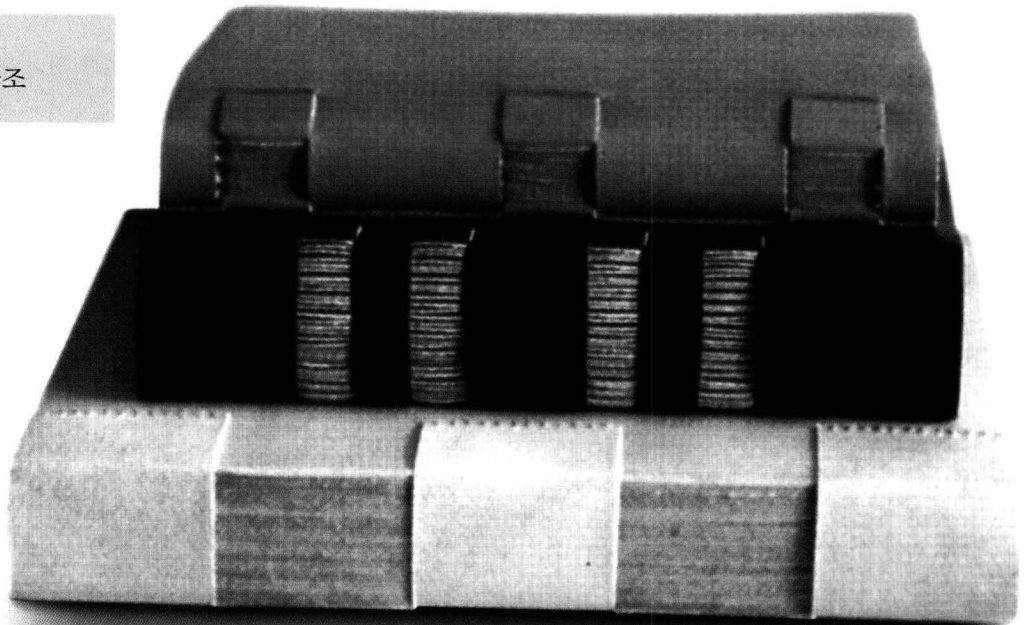
# Carmencho Arrequi

제본 1  
오아시스가죽



- 제본 오아시스가죽. 수놓은 바느질(책등) • 제작 1995년 • 크기 12×17×1cm
- “Nel breve cerchio” de Dianella Selvatico Estense Ed. All’ insegna del pesce d’ oro, Milano. 1988

제본 2  
서로 다른 도안의 교차된 구조



- 제본 서로 다른 도안의 교차된 구조(쌓아놓은 책 위로부터 ㉠ ㉡ ㉢) • 제작 1992년~1994년 • 책 livres blancs(노트)
- ㉠ 늘어나는 송아지가죽 15×20×2cm ㉡ 갈색 돼지가죽 15.5×21×4cm ㉢ 양피지 20×25×4cm